

제3대 신능순 교육감 취임사



제 3,4 대 신능순

재임기간 : 제3대 (1972.2.4~1976.2.3)

제4대 (1976.2.4~1980.2.10)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장 및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시군 교육장과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제3대 교육감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비상사태하의 교육의 사명이 막중함을 생각할 때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인은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위원 여러분과 친애하는 교육동지 여러분의 절대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바라며 전임 홍낙선 교육감께서 이루어 놓으신 훌륭한 업적과 행정 시책을 바탕으로 본인의 문교행정의 경험을 살려 경기도 교육의 알찬 발전을 위해서 성심성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현 비상시국 하의 본도 교육 행정에 대한 소신의 일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안보교육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북괴는 지금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남침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어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안보교육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교육적 요청이며 특히 긴 휴전선과 접해 있는 본도의 지리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시해야 할 교육 과제인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조국을 우리들의 힘으로 지켜야겠다는 정신무장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도서 접적지구 학교에서는 반공 교육의 생활화로 국토 방위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군경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겠습니다. 중등학교에서는 교련교육을 일층 강화해서 의연한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굳센 체력을 길러야 할 것이며 방공훈련과 시설을 정리함으로써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는 준비자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부강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교육은 생산적인 사고력과 기술을 익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제발하고 이론과 기술을 함께 체득하는 과학교육 실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교원의 자질향상 시책과 시설의 확충 정비에 힘 쓸 생각입니다.

셋째, 교육내용의 충실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역동적인 산교육의 실천으로 하여금 국가 사회가 바라는 가치관이 뚜렷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향토화로 산지식과 경험을 넓히는 교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새로운 학력관에 맞는 기초실력을 향상시키는 연구성이 있는 지도시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중등학교의 평준화와 낙후되고 있는 도서벽지 학교의 교육 시설의 평준화와 교육시설의 정비 확충과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지역 교직원의 우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새 교사상의 정립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성패는 교육입국의 신념이 뿌리박힌 교직원의 정신자세와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의 존경을 받는 사도의 확립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그 나라의 교직원들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학생과 국민들에게 그 열을 심어 주었느냐에 달렸음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비상사태가 선언된 오늘날 우리 교직원들에게 특히 바라고 싶은 것은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한 새로운 교사상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립 하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연찬과 수양에 힘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국가와 개인을 똑같이 생각하는 애국정신의 바탕 위에서 창의와 성실로서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고 우선 나의 둘째부터 이기주의적 사고방식과 퇴폐풍조를 몰아내고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대민봉사

와 서정을 쇄신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건실한 생활풍토를 조성하여 민족증흥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은 교수자이기 이전에 향토사회의 지도자이며 단결의 핵입니다.

지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비상한 결의로서 범국민적 ‘새마을 가꾸기’운동을 펴 나가고 있으며 온 국민의 절대적인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자들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금까지의 보수적 폐쇄적인 마음가짐을 벗어 버리고 교육의 사회화에 솔선하며 내 고장 내 나라의 생활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민족적 과업 완수에 다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겠습니다.

여섯째, 인화 단결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발전은 그 국민들의 조화된 가치관과 하나의 목표 의식으로 굳게 뭉쳐진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건전하고 화목한 인간관계가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교육계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교육현장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 행정체제를 확립하여 교직원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고 학원의 질서와 면학기풍을 조성하여 명량하고 융화 단결된 교육풍토 조성에 힘 쓸 생각입니다.

이상 간략히 본도 교육행정의 기본 방향에 대한 본인의 소신과 포부의 일단을 밝혔습니다마는 이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과제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감의 무거운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2월 4일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신 능 순